

복지관 소식

2022년 아삭아삭 김장 담그기 행사



◇한국생활개선홍천군연합회(연합회장 송영미)



◇아삭아삭 김장담그기 행사(다솜회회장 이선숙)



◇아삭아삭 김장담그기 행사(홍천군안전보안관회장 김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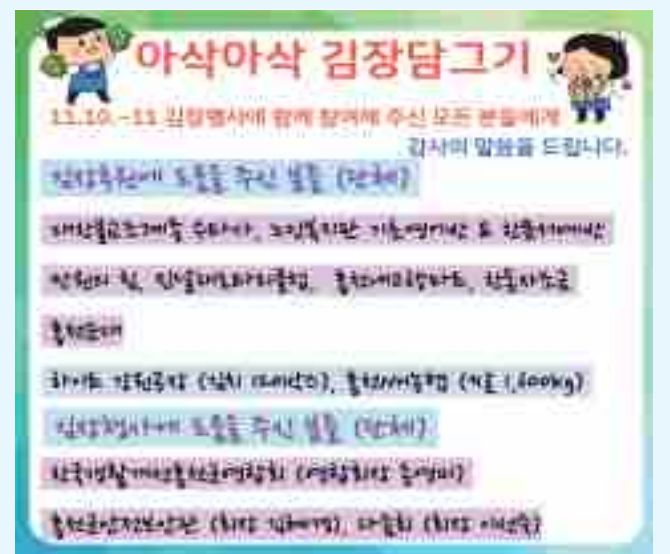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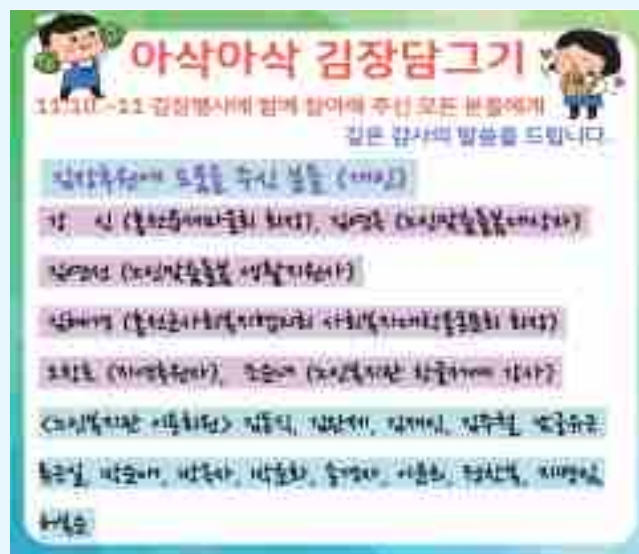
◇김장하는 모습



◇김치 전달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김장행사를 10~11월 실시하여 김치 200박스를 홀몸어르신 200가구에 게 전달했다.

이번 김장담그기 행사는 한국생활개선홍천군연합회(연합회장 송영미), 홍천군안전보안관(회장 김혜경), 다솜회(회장 이선숙) 단체가 참여해 다듬기, 절이기, 양념만들기, 버무리기까지 총 50여 명의 봉사자가 힘을 모아 김장김치를 담갔다. 사전에 복지관에서는 김장담그기 행사 준비로 배추 1,500포기 및 무 300개, 김장재료 등을 개인 및 지역 봉사단체로부터 후원받았다.



CONTENTS



02 - 베이비붐 세대

03 - 지역탐방 I

04 - 지역탐방 II

05 - 생활칼럼

06 - 기관탐방, 프로그램

07 - 인생칼럼, 구독자 칼럼

08 - 미래금융, 수타사신도회

09 - 지역소식

10 - 프로그램

11 - 아코디언반 기행

12 - 풍물단 기행



베이비붐 세대

그대를 무어라 부르리요

우리나라는 호칭에 대해 유난히 민감하다. 호칭이 서로의 관계설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호칭을 잘못 쓰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소원해진다. 반대로 호칭으로 인해서 가까워지기도 한다.

당신은 배우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배우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은 다양하다. 그리고 각 호칭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부 사이의 위계질서가 내포된 호칭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리고 약간은 비하하는 이미지가 담긴 것도 있다.

부부사이의 호칭 새롭게 정립돼야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노인층이 주류가 되었다. 더불어 이제 노인세대의 부부간의 호칭도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부부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협력하는 진정한 배우자관계가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호칭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그것이 베이비붐 세대의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은 ‘이’ 씨요 이름은 ‘봐’ 라

K씨(63세)는 중매로 만나 두 달여 만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였다.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한 채 결혼한 셈인데 살면서 정이 드는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결혼을 서두르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나이차가 다섯 살 정도 돼서 그런지 아내는 꽤 순종적이었다. 게다가 살림도 야무지게 잘 했다. K씨는 직장에 충실했다. 그것이 가정과 직장, 사회 나아가서 국가에 헌신하는 자신의 역할이요 책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모든 것들은 자연히 잘 해결되리라 믿었다. 가정조차도. 아내는 살림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았다. 아내도 남편인 자신에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K씨 가정은 별 문제없이 30년의 세월을 보냈다. 특별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것 같았다. 자식들은 그런대로 잘 성장해서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K씨 자신도 평생 한눈팔지 않고 살아온 덕에 노후를 큰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K씨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



◇축제를 즐기는 젊은 노인

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떳떳했다. 이제 건강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퇴직하고 보니 자동으로 굴러갈 것 같은 가정,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삐걱거렸다. 아내는 원래 별 말이 없고 남편에게 순종적이며 어디고 나대지 않았다. K씨는 남들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이상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사람은 변한다. 배우자도 사람이다. 그로 배우자도 변한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그렇듯이 K씨도 퇴직 후 얼마 동안은 추후 계획도 세우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느라 나름대로 분주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그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였다.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돌변했다. K씨는 아내의 그런 변화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 아내는 언제까지나 아내의 원래 모습대로 살 것이란데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변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30년이나 봐오지 않았던가!

아내는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내던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 변화에 대한 일말의 정보도 주지 않았고 경고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밥상 차려주지 않는 것은 다반사고 남편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 때가 많았다.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었다. 남편을 종종 투명인간 같이 대했다.

K씨는 속이 타고 답답했지만 아내는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는다. 성질을 부려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아내가 집안 살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수고한 것은 안다. 하지만 나 또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평생을 수고하지 않았나.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제 그대의 이름을 다시 불러 보리라

K씨는 주변에 조언을 구했다. 돌아온 답변들은 다양했다. 그런데 그 중에 그의 머리를 때리는 답변이 있었다. ‘아내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는 늘 아내를 부를 때, ‘이 봐’라고 불러왔었다. 그의 아버지가 아내를 그렇게 불러 왔던 것처럼. K씨는 심지어 OO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여보, 당신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호칭 속에 아내에 대한 비하가 은근히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평생을 이 호칭에 담겨있는 모멸과 무시를 견뎌냈지만 이제 그것들이 아내의 목까지 차오른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해오던 습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는 용기도 필요하고 어색함을 견뎌낼 인내도 필요하다.

K씨는 아내와 함께 앞으로 남은 세월을 잘 살아가기 위해 우선 호칭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 봐’ 대신 ‘여보’,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결혼 전에 불렀던 아내의 이름 ‘연지’씨라고 가끔은 불러 보기로 했다. K씨는 호칭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내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부사이가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적인 배우자관계로 재정립해나가기에 아직은 가능한 나이의 세대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영화 ‘노트북’의 한 장면. 치매 걸려 요양원에 있는 아내 곁을 지키며 기억을 되살려 내려고 애쓰는 남편

성문영기자 (sunggoodnews@naver.com)

지역탐방 I

홍천 무궁화수목원

자연이 주는 선물 ‘홍천 무궁화수목원’



정북 길로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바사삭 소리에만 귀 기울이면서 일상 소음을 잊고 가을 정취를 맘껏 즐겨볼 수 있다. 또한 산책로에는 곳곳에 쉼터가 있어 잠시 쉬면서 가져간 따끈한 커피를 마시며 자연을 벗 삼아 수다 삼매경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무궁화수목원과 연결하여 조성된 돌산등산로 힐링 숲길은 총거리 2.7km로 약 2시간정도면 정상 전망대에 다다를 수 있다.

전망대에서는 홍천을 품고 있는 가리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전망대까지 오르는 길은 풍광이 뛰어나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다. 특히 고속도로만 이용해 홍천을 들렀던 사람들이 국도를 이용해 방문해보면 또 다른 홍천을 만날 수 있어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는 곳이다.

‘지속가능한 여행’이 요즘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무궁화수목원 내 무궁화의 집은 이 추세에 발맞춰 계절별로 청보리와 코스모스 등 초·화류를 심어 한 번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자주 찾는 지속가능한 여행지를 만들고 있다.

무궁화수목원 방문객은 “우연히 이곳을 들러 무궁화 길을 산책한 후 이제는 단골명소가 되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족들과 이곳을 찾는다. 마음의 힐링도 하고 숲속도서관과 북 카페가 있어 너무 좋은 뷰에서 아이들과 책 읽기도 참 좋아서 자주 이용한다”면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추천했다.

자연이 주는 변화무쌍하고 무궁무진한 선물을 받으러 멀리 갈 필요 없이 닿을 수 있는 홍천 무궁화수목원에 들르면 어떨까.

이복여(boy1145@hanmail.net)



3개 코스 산책로 천천히 걷기 최적 돌산등산로 정상 가리산 조망 가능 숲속도서관·북 카페 아이들에게 인기

국내 최초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한 ‘홍천 무궁화수목원’은 우리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설이다.

2017년 공립 수목원으로 정식 등록된 무궁화수목원은 한서 남궁역광장, 무궁화조형물, 무궁화품종원, 미로원을 비롯해 숲속산책로, 온실,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 숲속산책로는 가을 야생화들이 환한 미

소로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하고 솔바람에 하늘하늘 춤추는 꽃들이 쉬었다 가라고 손짓하는 곳이다.

수목원 내에는 3개 코스로 된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다. 1코스 무궁화길은 40분가량, 2코스는 치유숲길로 1시간정도 소요되며 3코스는 완전



홍천 사과는 ‘합격 사과’



홍천 사과는 대학 입학시험인 수능에서 합격을 기원하는 사과이다.

실제로 2020년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을 맞는 수험생을 위하여 ‘홍천 합격 사과’ 일만 개를 한정 판매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이후 꾸준히 대학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합격 사과라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

홍천 사과는 청정지역에서 저온 피해, 봄 가뭄, 그리고 태풍과 강풍까지 이겨 내 떨어지지 않기에 홍천 사과는 ‘합격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온갖 시련을 이겨 내고 열매를 맺은 ‘홍천합격 사과’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단단한 과육, 새콤달콤 진한 향이 특색이며, 식이 섬유 등이 풍부하여 수험생의 피로를 풀어주고 두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홍천 사과를 자주 먹곤 한다.

이전엔 사과 재배는 주로 남부 지방이 주산지였으나 이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사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한 것인데, 이에 따라 재배 가능지역이 강원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북상한 강원도 사과는 산도와 당도의 조화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 맛이 좋고 평균 해발 800미터인 고지대 특성상 사과 재배에 유리한 큰 일교차가 최대 강점이다.

홍천군민들은 배추를 키우던 고랭지 밭에 사과나무를 심은 건 5년 전부터였으며 처음에는 2천여 제곱미터에서 시작해 지금은 8천 제곱미터까지 늘었다. 홍천군 영귀미면은 덕치리 마을회관에서 수타사에 이르는 약 2km에, 마을주민이 직접 대형화분을 비치해 사과나무를 심어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홍천군의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공작산 생태숲, 농촌 테마파크 등 수타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사시사철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대형화분에 주민 개별 이름표를 부착하고 관리하게 해 마을환경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함은 물론, 마을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봄에는 도로 왼쪽은 벚꽃길로, 가을엔 도로 오른쪽 사과나무 가로수길로 주민이 직접 형형색색 가꾸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직은 사과나무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수타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또 하나의 길거리 명소로서,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사과 나뭇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귀미면 지역은 홍천 사과 재배면적의 50%를 넘는 사과 재배의 최적지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덕치리 주변의 사과 농장을 방문하여 홍천군 사과 축제 출하 준비로 바쁜 한 농장주를 만나 사과 농장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물어 보았다.

기자: 이곳 홍천에서 사과 농장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취재원: 8년 됐습니다.

기자: 사과 농장을 시작한 계기는요?

취재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체 작물로 무엇이 적당할까 생각하다가 남부지방의 사과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사과 농장을 시작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취재원: 처음에는 사과 재배 기술의 노하우가 없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농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기자: 앞으로 홍천 사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취재원: 홍천에서도 맛있는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음을 군민들에게 알려서 사과 재배 지역을 지금보다 더 넓히고, 홍천 사과 축제를 통해 홍천 사과의 품질과 맛을 홍보하여 판매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수수나 잣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홍천 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제7회 홍천 사과 축제가 11월 4일~11월 6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 사과 축제에는 홍천의 32개의 농장이 참여했으며, 홍천 사과의 대표품종인 부사(후지), 시나 골드, 아리수 등 여러 가지 품종이 판매되었다.

축제장엔 홍천 사과 포토존, 사과 품종 전시회, 사과 와인 시음, 나만의 장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로 외부인들에게 홍천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맛있는 사과의 산지는 남부지방이 아닌 우리 강원도 홍천이 될 것을 확신하며 장기적인 플랜으로 우리 홍천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엷히고 설킨 고구마 줄기를 바라보며



지난 여름에는 하늘이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억수 같은 비가 마구 쏟아 퍼부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리만큼 가로수가 뿔히고 수십 만대의 차량들이 뒤집어지고, 물에 잠기고 망가졌다.

온갖 물건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가 나서 이곳 저곳이 물바다가 되었다.

바닷물이 넘치고, 집들이 부서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소, 돼지 등 가축들도 떠내려갔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잠긴 집 지붕 위에서 고립되기도 하고 물을 잔뜩 머금은 차량 지붕(썬루프) 위에 고립되기도 했다.

인명 피해가 속출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많았다. 어디론가 대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도 컸다.

온 나라가 홍수로 발각 뒤집혔다.

수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지고 부서지고 흙 무덤이 되어버린 집들과 온갖 잡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집은 무사하다. 비가 어떻게나 어떠한 모습으로 내리든지, 가랑비이든, 집중호우이든지 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 집 앞 텃밭에 심어 놓은 고구마는 땅 속에서 열매를 맺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큰 수확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사를 통해 일 년 열두 달 사계절의 소중함을 느낀다. 하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유이다.

고구마를 통해 바라본 고마운 나의 일상

이어서 고구마 캐던 이야기를 잠시 건네본다. 고구마가 무럭무럭 자라서 수확할 시기에는 지인들이 아이들의 산 교육을 위해 직접 수확하러 찾아오겠다고 한다.



어느 맑은 날씨에 좋은 주말을 정하여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왔다.

모두들 신이 나는 모습들이다. 모두들 들떠 있다. 시골의 강점은 마당에서 숯불을 피워 놓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한 차례 숯불에 고기를 잔뜩 구워 먹고 고구마를 캐려고 밭으로 갔다.

수확할 것은 다 수확하고 지인들이 썰 수 있도록 몇 군데 몇 무더기 남겨 놓았었다.

고구마 캐는 방법을 알려준 뒤에 고구마를 캐 보라고 했더니 처음 캐보는 사람들이라서 고구마 캐는 모습이 많이 어설프다.

4지창으로 삽질 하듯 하니 땅 속에 있는 고구마들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고구마들이 잘리고 찢히고, 상처 나고 난리도 아니다.

판매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그래도 다행이었다.

난생 처음 고구마를 캐 본 사람들은 신기하게 느끼면서 재미있어 했다.

올 여름의 기후는 좋지 않았지만 고구마 농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매우 감사한 일이다.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농사에 수고한 분에게 감사한다.

여러 사람들이 가족들이 캔 고구마를 한데 모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비슷한 것끼리 나누어서 박스에 담아 두고 식구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한 박스씩 나누어 주었다.

모두 다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해 했다.

농사지를 때는 힘들었지만 나누어 주는 기쁨이 힘들었던 것에 몇 배가 된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서 많이 나누기를 다짐해 본다.

이경희 기자(kyung-hee@naver.com)



기관탐방

화촌면 작은 즐거움

소락(小樂) ‘화촌면 작은 즐거움’



지난 11월 12일(토) 화촌면 마을회관 옆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화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작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소락(小樂)에 방문하여 취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락(小樂)이 생겨난 이후에 마을의 변화에 대하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 듣는 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만큼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이 아닌 시골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편입니다. 집 문 밖을 나서면 젊은 사람들이라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찾아보는 것은 두말 나위 없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우리 마을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 날 며칠 깊은 산속에 들어서 있는 것처럼 적막하기만 했는데 사람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바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화촌면 마을회관 옆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초등학교 옆을 지나는 시점에 서야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녁 늦게까지 마을회관에 머물게 되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행연 기자(bonbon2202@naver.com)

프로그램

어르신을 만나서, 생각을 엿듣다

그 옛날, 그 시절에는



◇나도 할 수 있다. 나이야 가라~~

어르신께서는 떨리는 손가락에 힘주어 색을 칠하십니다. 오늘은 스누피라는 만화캐릭터에 웃을 입히는 활동입니다. 어르신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어렸을 때에 즐겨보았던 만화, 그리고 옛날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사셨던 그 때 그 시절. 그 시절에 TV는 매우 귀한 골동품이었습니다. 동네에 TV가 있으면 밤이면 밤마다 온 동네 마을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서로가 앞 다투어 앞자리에 앉는다고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끌벅적 하였습니다.

“그 때 그 시절에 우리집에도 TV가 있었다우~”



◇꽃가마??? 새색시 시절을 떠올리며...

어르신께서는 새색시 시절에 꽃가마 타던 때를 기억하십니다.

연지끈지 얼굴에 곱게 화장을 하고 오늘날처럼 연애가 아니 중매결혼으로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철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나이가 들면서는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을 돌보느라 일평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얼굴이 발개지면서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남편이 본인을 엄청 아끼고 사랑했다고!”



◇산, 들, 바람. 저 멀리 양상한 나뭇가지 앞에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강에도 바람따라 물결이 일고, 양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마른 나무들은 본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이파리마저 땅에 떨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어르신께서는 즐거운 일보다는 외로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때가 되어야 찾아오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강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박경임 기자 (sunggoodnews@naver.com)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살아가는 사회는 사건사고와 부정과 불법이 생겨 정치권에서나 사회 각처에서 또는 이웃 간에도 이성을 잃고 엉켜 싸우는 일로 새 소식을 도배하고 있어도 명쾌하게 시시비비가 법으로 가려지거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세월을 악으로 바르고 있기도 한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믿음직한 말인가? 직장에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 기안을 결재하는 상사의 마음은 든든했을 것이다. 또한 아래 직원이 잘못하여 발생한 일을 위에 상사가 가로 맡아 “이것은 직원이 했지만 내가 책임자이니 당연히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직장은 계속하여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네가 살다보면 책임질 일과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선 책임을

지라고 고함치고, 한쪽에선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핏대 올리는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

“내가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니야!”

이렇게 큰소리치는 사람은 그의 뒤에 든든한 동아줄이 있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의 마지막 출구로 쓰는 독백일 것이다.

내일의 일을 모르기에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확실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라서 그런지는 모를 일이지만, 누구나 자신이 한일도 당

당하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잘하면 될 일이고, 거짓 없이 법대로 바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일 또는 맡은 일 들을 완수하면 될 일인데 부적절한 일을 저질러 놓고 발뺌을 하니 그 잘못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책임을 지라고 했고, 책임지겠다고 했을까?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안고 있을 수도, 또는 머리에 이고 있어도 될 것인데 말이다.

우리 민족은 남에게는 인심이 후하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

렇게 냉정하고 야박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에는 이, 돌에는 돌로 친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또한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도 한다.

사람이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가장 많이 그리고 편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등에 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책임도 등에 지고 있는 것이 편하고 덜 힘들게 해주는 것이기에 책임을 지라고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잘못된 책임을 완수하라는 것이 너무 강하다 싶어

조금 쉽게 해주기 위하여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실상 책임을 등 뒤에 지고 보니 견디기 쉽다. 또한 책임이 등 뒤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아니하니 관심도 멀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하고서도 어영비영 세월만 보내다 그냥 맡아 버린다. 이러하니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서도 “책임진다.” “책임져라” 하는 말을 우리들은 너나없이 쉽게 한다.

어릴 때 선생님이 짓궂은 악동들에게 내리는 처벌 중 가장 많이 하

는 것이 무릎을 꿇고 눈감고 손들고 있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약한 벌이 그냥 손들고 서 있으라는 벌이었다.

손들고 서있는 벌은 아프게 때리거나 힘든 체벌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웃으며 시작하지만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맨손을 위로 올린 것이지만 그렇게 팔이 무겁고 힘들 수가 없었다.

만약에 책임을 지지 말고 책임을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무서운 벌이며 무거운 책임일수록 들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며 또한 자기가 들고 가까이 보고 있어야 하니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아니면 책임을 머리에 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힘들고 목이 짓눌리게 되어 고생할 것이다.

아무튼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동물이라 자신이 할 일 자기가 해야 할 일, 자신이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모든 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회피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때문에 생겨난 책임지라는 말이 너무 쉽다보니 등에 누듯이 지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며시 내려놓고 맡아버리는 그런 책임으로 되고 있다.

필자는 강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임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책임 들어라”라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임 들어라!

<실버신문 구독자 시> 화을 이일배

홍시

늙으신 올엄닌
감을 좋아하셨지,
홍실 좋아하셨지.

한 입에 쏙 넣고
흡입하면
태양을 마시는 거야

광장동 누님댁 좁은 마당에
다닥다닥 열리는
대장감 홍시

문득 보고 싶은 언니
기쁘게 잡수시게
입에 쏙 넣어 드리고 싶다.

<실버신문 구독자 - 시>

설악에 기뭇

구독자: 조소연

산과 내, 풀과 나무, 봄 소생
녹아내린 얼음의 뒤꿈무니, 공룡능선

산과 물, 계곡과 폭포, 여름 천연
폭포수 쏟아지는 천지세상, 천불동 계곡

비단에 수를 놓은 듯, 가을 오색
햇살가득 찬란한 그림자, 주전골 단풍

바다처럼 널리 깔린 구름, 겨울 눈꽃
길이 없는 곳에서의 새로운 길, 대청봉

이름모를 풀, 알고 싶은 꽃. 산들바람
여기는 동해바다와 어우러진 설악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국의 자본 시장

보통 근대적 의미의 한국 금융과 자본 시장은 100여년 되었다고 말한다. 한국은 유럽 선진국과 미국,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비해 상당히 늦게 자본 시장이 형성되었고 지금까지도 금융 선진국에 비해 자본에 대한 인식이나 금융시스템에도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구한말을 거쳐은행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발달한 자본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기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부침을 겪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산업은행은 1897년에 세워진 한성은행으로 지금의 신한은행이다. 한성은행은 민간에 대한 환전 및 금융 업무를 주 업무로 시작했으나 뜻대로 순항하지 못했다.

1905년 금융공황으로 일본 제일은행의 융자를 받아 위기를 극복했으나 이후 일제의 자본과 조선의 친일계급의 자본으로 운영되어 일제의 조선 수탈 정책에 호응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초의 중앙은행은 조선이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 근대적 경제 제도가 유입되면서 자력으로 중앙은행을 설립하려 했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좌초되었으며, 1907년 일본 제일은행 경성

지점이 일본의 막대한 자본과 일제의 적극적 통화정책 실시로 사실상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였고 그 이름을 조선은행이라 칭했는데 이것이 해방 후 한국은행의 전신이다.

당시 조선은행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능을 다하였으며 조선의 자원과 토지를 수탈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민간은행이나 중앙은행들이 조선 사람들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동안 다른 금융 시장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선 한일합방 전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주식회사 성격을 띠었는데 발행주식수 대부분은 재한일본인에게 배정되었다. 수익률이 높아 이들 은행들의 주식은 인기가 높았으나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주식거래는 1900년대 초반부터 활기를 띠었으나 양복점이나 전당포 등에서의 장외거래였다.

1920년 5월에 최초의 증권거래시장인 '경성주식현물거래소'가 개설되었다. 거래종목 대부분은 일본 도쿄거래소와 오사카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이었으나 1918년 조선식산은행과 조선방직의 주식도 상장되어 거래가 활발하였다.

1896년에 '인천미두취인소'가 세워졌다. 이는 조선 최초의 쌀 선물 거래소였다, 쌀과 콩 등 여러 가지를 거래했으나 쌀을 제외하고는 다른 곡

물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거래방식은 현재의 선물시장과 비슷하였다. 장래의 쌀값을 예측하여 사고파는 계약을 하였다. 약속한 시점에 다다르면 실제 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주고받았다. 물론 만기 시에 현물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또한 가진 돈의 10배 물량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한 매수가 가능하여 말 그대로 도박판이 따로 없었다. 이러한 미두 거래는 소수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는지 모르나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인천은 가히 조선의 월스트리트였다. 인천미두취인소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세운 거래소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과 합쳐 '조선취인소'가 되었고 만주사변 등의 전쟁특수로 발전을 거듭했으나 일본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러가는 1940년 이후로는 하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식민지 제국들이 들여온 금융 시스템과 자본 형성은 유럽의 여러 식민 제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 조선에게 알맞은 금융을 이식하진 않았다. 오히려 수탈과 통치의 수단으로 금융을 이용한 면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우리나라의 금융과 자본은 앞으로도 많은 수난을 겪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김민호 기자 (minho215@hanmail.net)

수타사신도회, 따뜻한 나눔



홍천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는 11월 14일 수타사신도회(신도회장 오승훈)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100만원을 기탁받았다.



수타사신도회(신도회장 오승훈)은 11월 11일 강원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순)에서 홍천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소식

서면 노동서원, 홍천강변 걷기축제

노동서원의 이야기



◇서면 노동서원에서 향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

노동서원, 향교의 본원

홍천군 서면 노동서원은 홍천군 향교의 본원으로서 2022년 10월 1일은 매년 빠짐없이 향사를 치르고 있다.

향사는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행위인데 죽은 선조에게 음식이나 재물을 바치어 현재 살아있는 자손대대로 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례 의식 중의 하나인 셈이다. 서원의 설립 배경에 대하여 시대적인 상황으로 구분지어 이야기하자면 조선시대 초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향촌활동, 즉 시골마을 자치 활동에서부터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향촌은 시골마을이나 고을을 일컫는데 향촌질서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그 마을의 큰 위기로 바라볼 수 있다.

노동서원, 홍천군 서면에 위치

홍천 노동서원의 위치는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84-2에 위치해있다. 홍천 노동서원의 의미는 최종 선생의 굳은 지조가 스며있는 곳이기도 한다. 필자는 홍천지역에 서원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강원도 홍천지역에 노동서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놀랐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노동서원에는 최종의 초상이 보관되어 있다. 강원도 유형문화제 제 189호 홍천군 노동서원 내에 위치한 최종의 초상은 유물, 일반회화, 초상화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08월 01일자로 1점이 보관되어 있다. 늠름하고 위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최종선생은 눈빛에서 나오는 단호함은 그 어떤 학자의 지식적 위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더구나 구태의연한 사고방

식에 벗어나 고려시대 나라안정에 힘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칭하니 감히 놀라울 따름이다.

노동서원 그리고 최종 선생

노동서원은 우리나라 사학의 원조인 최종 선생의 이야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해 본 사람들이라면 최종 선생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이름과 호 또한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다. 또한, 최종은 학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어 졌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신이라고 불려진 최종은 고려라는 나라의 안정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최종이 세운 대표적인 학당은 9재 학당이다. 9재 학당이라 함은 9개의 교실을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고 하여서 9재 학당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최종 후대 이야기

최종의 열 두번째 손자인 최변은 홍천으로 낙향하던 시절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랄만한 점은 최변이 낙향하자 그 자손들이 대대로 날로 번창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최종의 영정을 모신 영정을 지었는데 이 영정이 오늘날에 와서는 노동서원이라고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서원이라는 말 자체가 다소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물씬 풍겨져 나왔지만 최종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접목시켜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니 최종이라는 학자가 감히 위대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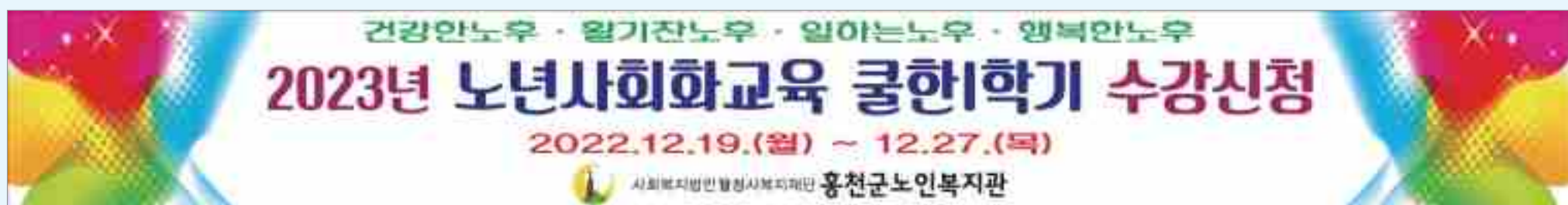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제15회 홍천강변 걷기축제



지난 11월 12일, 홍천강변 걷기축제가 한창 열렸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걷기 축제는 군차원에서 걷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너무나 할 것 없이 홍천군민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한 마당이 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걷기 축제는 홍천읍 지역뿐만 아니라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각 사회단체별로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홍천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 뜻깊었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프로그램

이동복지관/게이트볼(나만의 청춘 스포츠)

이동복지관 “함께해요! 우리마을!”

원거리 접근향상 프로그램

지난 10월 14일, 이동복지관 함께해요 우리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내면, 내촌면, 서석면)

프로그램을 통해 좋았던 점,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아서 복지관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복지관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저 멀리 소풍을 떠나는 것 같다. 마치 어린 시절 소녀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들른다.”

“아들, 딸... 자식도 출가하고 집에서 식물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물을 가꾸어 본 경험이 너무 좋았다. 내년에도 원예프로그램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서만 들어앉아 있으면 평소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웃음체조 때문에 얼마나 웃었



는지 모르겠다. 건강도 챙기고, 웃으면서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엔돌핀도 올라가니까 일석이조다!”

게이트볼 (나만의 청춘 스포츠!)



인생은 길고! 체력은 강하게!

‘게이트볼에는 어떠한 재미가 숨겨져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조금 하려고 하면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이 흠이라면 그것이 바로 흠이 된다. 이제는 어느 덧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내 나이. 남들이 바라보면 나이 90이 되어서도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내 나이 건강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선부른 판단이다. 100세 건강시대를 도래했기 때문이다.

내 주변 내 나이 비슷한 또래 동료를 만나다보면 한두 가지 정도의 운동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운동을 취미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운동을 취미로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제부터 게이트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연령대를 불문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노인들 이 시간이 많아서 저런 경기나 하는 것이겠지!

라면서 나는 내 일상에 집중하여 왔다. 하지만, 이게 웬 걸.... 게이트볼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내 나 이 팔십이 되어서 게이트볼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인생을 길게 보면 길고, 짧게 보면 짧다. 내 남은 인생 중에서 길게 봐야 10여년.

이 나이에도 취미활동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어제 또 참여했고,

게이트볼 승패현황

연번	참가팀	경기명	일시	승자팀	경기결과	승자팀	경기결과
1	복지관	게이트볼	09/20(토) 13시	복지관	3전 2승 1패	외동	3전 1승 2패
2	복지관	연봉	09/27(토) 13시	복지관	3전 1승 2패	연봉	3전 1승 2패
3	외동	상화	09/30(토) 13시	외동	3전 2승 1패	상화	3전 1승 2패
4	복지관	연봉	09/10(토) 13시	복지관	3전 1승 2패	연봉	3전 1승 2패
5	상화	외동	09/24(토) 13시	상화	3전 1승 2패	외동	3전 1승 2패
6	연봉	상화	09/24(토) 13시	연봉	3전 1승 2패	상화	3전 1승 2패
7	복지관	외동	10/08(토) 13시	복지관	3전 1승 2패	외동	3전 1승 2패
8	연봉	상화	10/15(토) 13시	연봉	3전 1승 2패	상화	3전 1승 2패
9	외동	연봉	11/05(토) 13시	외동	3전 1승 2패	연봉	3전 1승 2패
10	상화	복지관	11/12(토) 13시	상화	3전 1승 2패	복지관	3전 1승 2패
11	연봉	외동	11/19(토) 13시	연봉	3전 1승 2패	외동	3전 1승 2패
12	상화	연봉	11/26(토) 13시	상화	3전 1승 2패	연봉	3전 1승 2패

게이트볼 대진표

시합수	일시	참가팀
1	12/03(토) 13시	외동 : 연봉 상화 : 오안
2	12/10(토) 13시	연봉 : 복지 상화 : 외동
3	12/18(토) 10시	복지 : 연봉 외동 : 상화

오늘도 참여하고, 내일도 참여할 계획이다. 내 사랑. 게이트볼.

김동식 기자(dong-sik@naver.com)

아코디언반 기행

아코디언반 꽃뵤아코



추억의 소리 아코디언반



추억의 소리 아코디언반을 소개합니다.

그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에 동네마다 명절 때가 되면 콩쿠르대회가 마을 곳곳마다 열리곤 했습니다. 바로 그 때 등장하는 악기가 오직 아코디언 뿐이었다지요. 전기도 필요 없고, 혼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 악기, 손풍금, 오늘날의 아코디언이라는 악기였습니다.

음악소리가 좋아서 누구나 한번쯤은 배우고 싶었지만 악기의 가격이 만만치 않고, 배우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선뜻 나설 용기가 없어서 악기배우는 간단한 시도조차 못했지만 한해 두 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남은 인생여정을 음악과 함께, 아코디언과 함께 즐기시는 분이 현재 강사를 포함하여 총 11분이 계십니다. 교편을 잡으셨던 분, 평생 공직에 종사하셨던 분, 모두가 젊장고 젠들하셔서 악기를 배우는 동안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코디언반 구성원은 여자단원이 4명, 남자단원이 7명입니다. 대부분의 악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한달 두달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입문할 수 있지만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은 음정, 박자, 화음을 혼자서 연주하기에는, 아코디언의 세계에 입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아코디언반에서는 음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악기구입방법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반 회원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며 즐겁게 배우는 그 시간이 내 노년의 마지막 삶을 장식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보람과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이 제시된다고 하

지만 인간의 말초신경계를 자극하여 뇌하수체와 해마를 원활하게 하는 인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코디언만큼 좋은 악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년의 삶을 아코디언과 함께.



저희 아코디언반 “꽃뵤아코”에서는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정규 아코디언반은 오로지 저희 하나뿐입니다.

음악의 계명을 잘 몰라도 저희 아코디언반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존재하며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악기구입 노하우도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학필 강사분께서 교육을 해 주시며, 매주 월요일에는 이연옥 강사분께서 리듬(박자)위주로 중점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실시함에 미숙함이 있겠지만 애정어린 정성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기에 감히 최고의 강사분들이라고 예찬합니다. 지금 당장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코디언반 회원 분들의 한마디

전학필: “전혀 모르던 아코디언이라는 악기가 나 혼자 스스로 반주가 가능하고 리듬도 크롬이 가능해서 마음에 든다”

이연옥: “아코디언이라는 신비로운 악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 그 매력에 나도 모르게 흠뻑 빠져들었으며 아코디언과 함께 내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다”

윤선미: “멜로디와 화음이 동시에 가능한 악기 아코디언” 더욱이 혼자서 연주할 때에 내 감정이란이 더욱 풍부해져서 내 마음에 보옥 든다”

아코디언반 회원 분들의 한마디

윤정민: “어릴 때에 우연치 않게 아코디언 소리를 접했는데 너무 좋았다.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다. 평생 못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아코디언과 함께라서 행복하다”

한석화: “아코디언 덕분에 노년에 맑고 좋은 기운을 받는다 노년에 젊음이 더해져서 생기가 든다”

서정만: “아코디언이라는 신비로운 악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 그 매력에 나도 모르게 흠뻑 빠져들었으며 아코디언과 함께 내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다”

아코디언반 회원 명단

서정만, 유영천, 윤선미, 윤정민, 이범석, 이연옥

장동관, 전학필, 정관선, 한석화, 황경일

최근 연주곡명

1. 품의뱃 내 고향
2. 일곱
3. 강족수
4. 해변의 여인
5. 화랑의 속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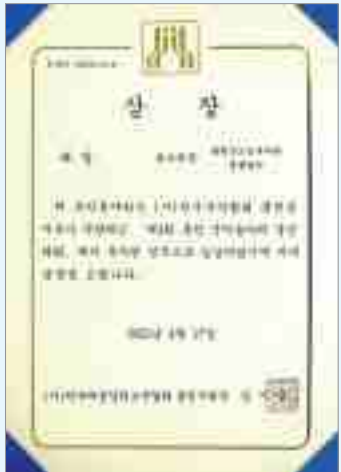


시간을 내셔서 저희 아코디언반 교육과정에 참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아코디언반(전 아코디언강사) 유영천

타악기 위주로 구성된 풍물단, 활기찬 노년생활



◇ '제5회 홍천 국악동아리 경연대회' 대상 수상



◇ '제6회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 대상 수상

'홍천 국악동아리 경연대회' 및 '제6회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 대상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악속장소에 다다르니 흥겨운 농악소리가 건물 밖까지 울려 퍼진다. 2층 연습실 문을 여니 홍천 노인복지관 풍물단원들의 흥겨운 가락소리에 가을비를 살짝 뿌리고 지나가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절로 들쭉거린다.

우리나라 고유의 국악이라는 장르가 양악기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기 위한 악기들은 아니다. 그러나 타악기 위주로 구성된 풍물단의 연습광경을 보고 있자니 리듬감, 변화무쌍한 속도감과 강약의 변화 그리고 장단에 맞춰 들쭉이는 어깨추임 등으로 보는 이들의 관심과 흥겨움을 단숨에 끌어 들일 수 있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장구, 북, 태평소, 징, 상쇠 등의 단조로운 구성의 홍천 노인복지관 풍물단이지만 무리 지어 서로의 감정을 결눈질로 확인하며 연주하는 단원들의 표정을 보고 있노라니 그 동안 서로간의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9월에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치러진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홍천지부'가 주관했던 '홍천 국악동아리 경연대회'와 11월에 진행된 '사단

법인 한국 음악협회 홍천군지부' 주관 '제6회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에서 연거푸 대상을 수상했던 결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단원들의 연습광경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10여년전에 '풍물놀이단' 동아리가 시작되어 7년전부터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성인환 반장님을 주축으로 현재 25명의 단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연습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정기적인 모임과 연습을 이어가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즐기셔서 그런지 단원들의 표정엔 노년이라고 하기엔 민망스러울 정도로 젊음의 활력이 온몸으로 넘쳐난다.

농사일, 집안살림, 손자 돌보기 등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나마 틈을 내어 함께 모여 연습하며 생활잡담들을 쏟아내다 보면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육체적 긴장감도 덜어낼 수 있으니 노년생활에 참 좋은 동아리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활동들로 유명세를 탄 덕분에 이제는 수시로 의뢰가 들어오는 외부공연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벅찰 만큼 바쁘게들 생활한다고 하신다.

홍천노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공연도 자주 치러지는데 악기대여, 차량지원 등의 물품들이 풍물단 외 사물놀이, 민요 등 다른 동아리

와의 공동사용인 관계로 가끔 조정애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습실 사용시간 제약 때문에 짧은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중에도 단원들은 얼마 후 진행될 단풍놀이 준비 관계로 떠들썩한 잡담들을 이어가고 있었다. 재미있고 보람 있는 여행들 다녀오시고 흥겨운 풍물단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며 건강한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풍물단 동아리 활동에는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다고 하니 관내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활동참여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가세 가세 산천경개로~ 늙기나 전에 구경가세~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열심을 다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풍물놀이반에 참여하셨던 000어르신은 "나의 노랫자락에 따라서 징이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에서 장구소리가 들려오니 흥이 절로 난다"면서 내 평생에 장구와 북은 영원한 벗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뽕- 태평소를 불고, 둥- 북을 치고, 뽕- 징을 치는 어르신들의 모습